

선교 현장 이야기

성경 본문	빌립보서 4:15~20
요절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19).
찬송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이과의 목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효과적인 선교 동역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I. 생각하기

1. 선교사가 겪는 어려움과 힘든 일, 그리고 만족과 보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 아는 대로 나누어 봅시다.



II. 생각 넓히기

1. 선교사 바울을 후원한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4:15에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의 인사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바



울은 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합니다. 자신을 도와준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이익이 늘어나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에게 보낸 선교 헌금이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역을 통해 바울은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차원을 넘어 빌립보 교인들의 넘치는 사랑과 마음과 정성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시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9절). 이것이 바울의 기도와 믿음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선교사와 후원자/후원교회의 관계에 대한 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처지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 모양의 지원을 통해 사역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전해 줍니다.

2. 선교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선교사를 후원하려 할 때, 우리는 먼저 선교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가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는 지를 알아야 효과적인 선교 후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후원 교회에 기대하는 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교지와 선교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 안정적인 선교비 지원, 서로 간의 인격적인 신뢰, 개인과 가족 및 전반적인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와 관심.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 선교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교지와 선교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

아프리카 K국에서 33년째 사역중인 한 선교사는 선교지와 선교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교사와 후원 교회가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초석이라고 설명합니다. 선교지의 실제적인 필요 (Felt Needs)를 알고, 구체적인 후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수십년 전의 모습으로 선교지를 알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후원 교회에서 선교 현장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집에 있던 모든 가전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고, 그런 중에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후원하는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무언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지는 나라와 지역마다 정치와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서 선교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사역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언제나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감동이 있는 선교 보고를 기대하는 것은 선교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지난 과거의 선교 역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결과를 재현해 내기를 바라는 것이나, TV나 인터넷으로 보았던 사례를 반복하기를 요구하는 것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가능하면 후원 교회가 정기적으로 개인이나 팀으로 와서 현장을 직접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선교지와 선교사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안정적인 선교비 지원

그동안 이루어진 세계경제의 발달로 인해 거의 모든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가 현지에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도 상당히 증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K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비자비 (매번 갱신해야 하는 추가 비용), 교육비 (현지인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비용도 증가), 주거비 (지속적인 상승), 사역비 (부족한 생활비를 사역비로 써야 하는 상황). 최근에 T국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의 우선적인 기도제목은 먼저 집을 사는 일입니다. 당국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조건으로 현지에 집을 구입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당장 그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희생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선교사의 경우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본국에 있는 할아버지의 집이 시내에서 시골로, 아파트에서 빌라로, 자가에서 전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손자들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에게 가장 힘든 일은 선교 후원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입니다. 후원 재정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역을 계획하고, 지원이 필요한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데, 사전 통보나 논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후원이 끊어지면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사역지가 바뀔 때나 후원 교회 선교부장이 바뀔 때마다 후원이 중단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꾸준하고 일관성이 있는 후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3) 서로 간의 인격적인 신뢰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선교사와 후원교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주 만나거나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신뢰는 더 중요합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선교사는 정직하고 솔직한 사역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종 과장되거나, 무언가를 감추는 보고가 생기는 이유는 깨어진 신뢰관계 탓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특정 교회와 후원 관계를 맺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허니문 (honeymoon)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교사를 향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을, 후원교회를 향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피차가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인격적인 신뢰가 조건부로 바뀌곤 합니다. 후원 교회가 다른 선교지와 비교를 하며 기대치를 정하기도 하고, 선교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뢰보다는 의무와 부담이 관계의 중심이 되어 마치 갑과 을의 관계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어떤 식으로든 후원교회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과장된 보고를 해야만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지킬 수 있는 계약관계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4) 개인과 가족 및 전반적인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와 관심

후원교회가 여러 선교사를 후원하고 동역하는 경우에는 선교사 개인이나 가족 혹은 사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피상적인 관심에 그치기도 하고,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일반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어린 관심과 배려가 선교지의 가족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은 후원교회에서 손 편지와 함께 보낸 생일선물을 받았을 때, 아이들의 얼굴에 넘치던 함박 웃음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SNS를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 편지로만 알 수 있었던 선교사의 개인 사정이나 사역 소식도 바로 접할 수 있고, 기도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같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지리적인 거리는 얼마든지 좁혀질 수 있습니다.



3.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으로 열거한 현장 선교사의 필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를 각 소그룹 (셀, 구역, 목장)이 맡아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진솔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선교사역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더욱 효과적인 선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보내는 공식적인 선교 편지에는 담지 못하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두 번 특별한 시기 (생일, 성탄절, 부활절 등)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소그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교지로 배달되는 본국의 선물은 생각보다 큰 격려와 정서적인 도움을 주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을 달래 주는 역할도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단기선교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교회가 자체적으로 단기선교를 준비할 수 없으면, 교회가 후원하는 지역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선교단체의 방문에 동참할 수도 있고, 동일한 지역을 섬기는 다른 교회와의 연합 단기선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과 후원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선교사와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기적인 연락이나 선교비 송금을 담당하는 사람 (직분자나 직원)이 바뀌었을 경우에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열매에 대한 부담보다는 지속적인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III. 생각살기

1. 우리 교회가 협력/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2. 우리 교회가 협력/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소그룹/교회가 올 한 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생각하며 나누어 봅시다.

